

# 2018 광주비엔날레 '꼭 봐야할 작품'은

## 크레이터 11명 추천 작품·전시

2018광주비엔날레(11월11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 11명의 크레이터가 '꼭 봐야할 전시' 작품들을 꼽았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역량 있는 크레이터들은 지정학, 정치, 경제, 감정, 세대 간 '경계'에 대한 이슈를 다채롭게 풀어냈다. 이번 비엔날레에는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을 주제로 총 43개국 165명 작가가 참여한다.

### ◇'더 위대한 바그다드를 위한(페미니스트) 계획' (알라 유니스·쿠웨이트)

석유 수익 증가로 야심찬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이어지던 1950년대의 바그다드를 살펴본다. 당대 최고의 건축가 르코르뷔지에가 설계하고 1980년 사담 후세인 정권 때 완공된 실내 체육관의 구성과 건설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력 구조를 쫓는다. 이 작품은 제작 과정에 참여한 여성 인물들을 통해 건축적 서사를 구축하면서, 바그다드 격변의 시기에 대한 역사와 더불어 그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고 있다.

### ◇'코프테 항공사' (할릴 알틴데레·터키)

터키 내 소외된 지역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적 수순을 그려본다. 현재의 시리아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알틴데레는 전 시리아 공군 비행사이자 이스탄불 난민촌 난민인 모하마드 파리와 함께 비디오 영상 작품 '우주 난민'을 만들었다. '코프테 항공사'는 상상된 항공사 포스터다. 시리아 난민이 이륙을 준비하는 비행기 꼭대기에 앉은 모습을 찍었다. 작가는 유머를 통해 막다른 상황의 위기를 비판한다.

### ◇'평면이 새로운 깊이' (선우 훈·한국)

민주사회 개인의 유토피아적 표현을 위해 '픽셀'을 매체로 선택했다. 이 작품은 웹툰 형식에 기반해 해시태그가 달린 아이폰 화면이 개인을 옆으로 나타내게 했다. 곧장 해시태그는 원래 메시지를 뒷받침 하거나 왜곡하는 형태로 재생산된다. 이야기는 대한민국 집회 1번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작한다. 작품은 집단적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포스트 인터넷 환경이 내재하는 특이한 안에서 새로운 공적 영역이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게스트 하우스' (우릉 솔로·호주 등)

우릉 솔로는 아가타 고펜-스네이프와 브라이언푸아타의 협업 그룹이다. 두 작가는 즉흥적이고 추상적인 도구로 '불안의 영역을 재구성'한다. 작가들은 올해 초 광주에서 '귀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이번에는 전시 개막 주간에 아카이브 라운지에서 영상 작품과 함께 작가들이 직접 퍼포먼스를 펼친다.

### ◇'이중구속' (아르나우트 막네덜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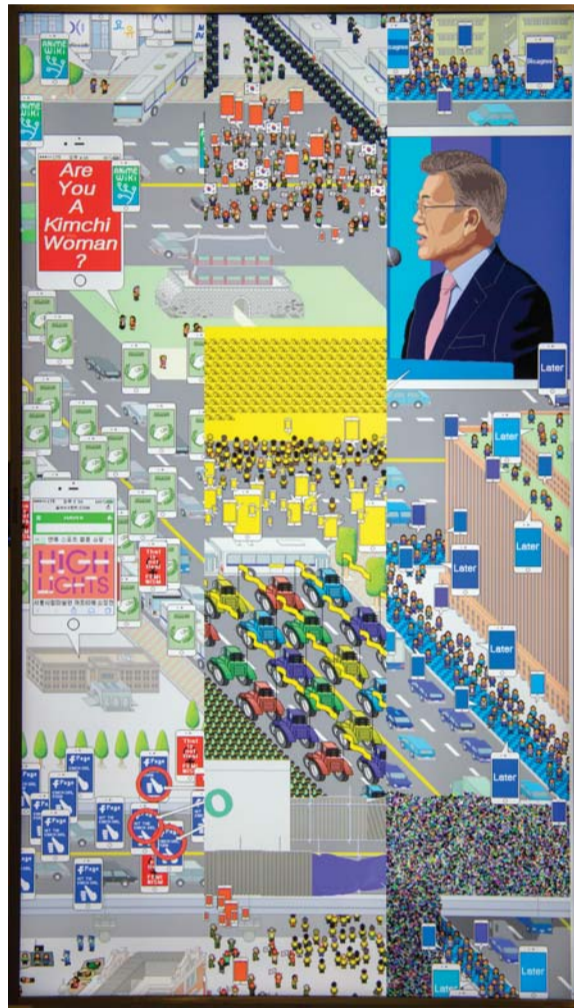
프랑스 렌 지역에서 촬영한 영상 설치작으로 5·18민주평화기념관 3관(옛 전남도청)에서 볼 수 있다.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유럽 곳곳에 경찰 배치와 증대된 상황을 이야기한다. 작품은 최근 일어난 사건들의 잔상과 가상의 새로운 위협들을 보여주면서 동시대 도시의 불안을 나타낸다. 경찰을 유희와 같은 존재로 표현하면서 우리 신체와 육체적, 정신적으로 잡아내는 고통과 불안의 상태에 접근한다.

### ◇'석고 캐스팅' (권운주·한국)

일상에서 수집한 사물들이 지닌 운동성을 포착해 그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새롭게 끄집어낸다. 임시적이고 임의적인 형태로 엮이면서 각 재료의 기존 기능은 새로운 구조를 위한 가능성으로 전환된다. 각 재료의 성질과 색감, 형



할릴 알틴데레 작 '코프테 항공사'



선우 훈 작 '평면이 새로운 깊이'

태, 그리고 익숙한 기준의 용도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충돌을 해소하고 견고한 하나의 덩어리로 구축된다. 이런 결속의 구조는 사회구조를 지탱하는 개인과 집단의 행태가 만들어낸 상태를 시각화한다.

### ◇'소나기' (김인석·북한)

조선화 분야에서 북한 최고의 작가로 꼽히는 김인석 공훈예술가가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조층 6관에서 열리는 '북한미술:사회주의의 패러독스'에는 대형 집체화를 포함해 모두 22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 ◇'이름 없는 존재 & 이름' (호 추 니엔·싱가포르)

사회 정치적 역사, 스파이, 그리고 국정 운영 등을 다룬 이 작품은 기존 두 작업을 결합해 탄생했다. 유령작가 진 Z, 한라산과 삼중 스파이로 드러난 말레이시아 공산당 서기 라이텍을 다뤘다. 작품에서는 라이텍의 삶에 대한 또 다른 서사를 재창조해 삼중 스파이의 국적과 독창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애국자가 여러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 어떻게 정치 이데올로기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지금 여기, 어느 곳도 아닌' (조형섭·한국)

4채널 영상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대단위 고층빌딩 공사가 이루어지는 해변과 건물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포착한다. 거대한 광고판 아래에서 이뤄지는 격렬한 체조행위와 공장장 안전막 사이로 위태롭게 이동하는 장애인이 비춰진다. 도시 사람들의 퍼포먼스는 그 사람됨 혹은 그 사람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퍼포먼스를 무력화시킨다. 거대한 건축물과 상업광고판으로 둘러싸인 삶이 지금, 여기를 그 어느 곳도 아닌 세계로 파악하는 것은 우연일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사이공 시계 연구' (테렌스 가워·캐나다)

커티스 앤 데이비스가 설계하고 1967년 개관한 사이공주재 미 대사관을 다뤘다. 차양으로 완전히 덮인 이 대사관은 최초로 대규모 공격을 받은 미 대사관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에서 작가는 1980년대 중반 미국이 공격에 대비해 대사관 설계 전략을 고쳐 쓰게 된 역사적 정황을 밝힌다. 작가는 모던 운동과 유토피아적 이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면서 전후 시기 미국의 국제 관계를 분석하는 도구로서 미국의 외교 건축을 연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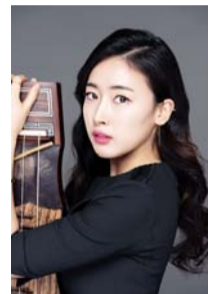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가을엔...



## 국악 전남도립국악원, 내일 신진 협연 '청춘 락'

전남도립국악단이 오는 8일 오후 5시 무안군 남도소리유희터에서 신진 국악인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 '청춘 락(樂)'을 선보인다. '청춘 락'에는 지난 7월 전국 국악 전공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곡예술포럼(4년)의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윤희민(부산대 석사과정)씨의 거문고 협주곡 '청우', 이성은(전남대 4년)씨의 가야금병창 협연 수궁가 중 '고고천변', 김민서(국립국악고 1년)군의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협주곡,



거문고 윤희민

선지향(전남대 2년)씨의 가야금 협주곡 '아랑의 꿈'이 이어진다. 또 김영탁·김현기·이민후·최마루(한예중 2년)씨가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3악장'을 무대에 올린다. 관람료 일반 1만원, 단체·대학생 7000원, 학생 5000원, 65세 이상·장애인 등 무료. 문의 061-285-692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재즈 10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월요콘서트'로 재즈이노베이션의 '인 더 재즈 미드나잇' 공연을 연다. 기타리스트 이대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재즈이노베이션은 '레인 드롭스', '프리 패스' 등 두 장의 음반을 발표하고 다양한 장르의 즉흥연주를 펼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재즈곡 '낙엽(Au-

tumn Leaves)'와 보니.엠의 '씨니', 봄여름가을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들을 준비했다. 드럼 원익준, 베이스 전 사무엘, 보컬 윤덕현, 첼로 김지윤 등이 출연한다. '월요콘서트'는 객석 일부는 소외계층에 제공하고 관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료 관람. 문의 062-670-794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시서화 광주문인협·미협 광주시지회 성료

광주문인협회(회장 임원식)와 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회장 곽수봉)가 공동으로 개최한 '시인과 함께하는 시서화전'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광주시 옛 동구정 2층 시립미술관 남남로 분관에서 진행된 이번 시서화전은 시인들의 문학적 소양을 증진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들은 시에 서예 및 그림을 결합한 회원 66편을 선보였

다. 특히 지난 5일 기념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 등 외부인이 참석해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문인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식전 행사로 김숙희, 김현옥 시낭송가의 '불혹의 연가', '가을의 기도' 시낭송과 김미옥 교수의 축하 '목련화', '썩죽새 운다'가 공연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한정식 A코스 50,000 | B코스 40,000 | C코스 30,000

일품요리 굴비정식 | 삼합정식 | 떡갈비정식 | 황태찜정식 | 새우튀김정식 22,000

## 대를 이은 가족모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족 모임이 시작되는 각별한 인연

www.geumssojang.com

중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9월 23일~25일은 추석휴무입니다. 26일(수)부터 정상적 모시겠습니다.

##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